

【 국 어 】

1. 높임법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 ① 고객님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② 할아버지께서 네 방으로 오라고 하셨어.
- ③ 지금부터 사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④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여쭙어 보셨어요.

2.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새 신발을 신으니 발이 아프다.
- ②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③ 그는 해외로 출장을 자주 다닌다.
- ④ 철수는 이번 시험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3.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극 갈래는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 등을 거쳐 신파극, 근대극, 현대극으로 발전해 왔다. 가면극은 신라의 오기, 검무, 처용무에서 시작하여 고려의 나례, 조선의 산대희와 탈춤으로 발전하였다. 인형극은 삼국 시대의 목우희에서 나무인형으로 노는 인형극, 고려 시대의 꼭두각시놀음과 그림자극인 망석중 놀이로 이어졌다. 조선 후기에 발생한 판소리는 신재효가 ㉠ 여섯 마당으로 정리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 ① 만분가 ② 적벽가
③ 심청가 ④ 춘향가

4.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것은?

- 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5. 다음 한시의 형식적 갈래로 적절한 것은?

雨歇長堤草色多 비 갠 긴 독엔 풀빛이 짙어 가는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어느 때 마르려는지
別淚年年添綠波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 정지상, 「송인(送人)」

- ① 5언 절구 ② 5언 율시
③ 7언 절구 ④ 7언 율시

6.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진이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공부해야 한다며 공부 계획을 짜서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훈이는 그 책의 두께를 보는 순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여섯 달이 지난 후 시험에 합격한 수진이는 자신도 처음엔 책 두께를 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공부한 결과 그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있었다고 했다.

- ① 마부위침(磨斧爲針)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③ 어부지리(漁夫之利) ④ 상전벽해(桑田碧海)

7. ‘음운의 축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되 + 어 → 돼 ② 두 + 었다 → 뒀다
③ 가 + 아서 → 가서 ④ 쓰 + 이어 → 씌어

8. 다음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눌 때, 적절한 것은?

하늘이 맑고 푸르다.

- ① 하늘이/ 맑고/ 푸르다
② 하늘/ 이/ 맑고/ 푸르다
③ 하늘/ 이/ 맑고/ 푸르/ 다
④ 하늘/ 이/ 맑/ 고/ 푸르/ 다

9.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작성하였다. <보기>의 문장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자 료〉—

[한글 맞춤법]

- 제2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41항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보기〉—

- ㄱ.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 ㄴ. 한국인 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있을까?
- ㄷ. 돈을 많이 모아서 멋진 집 한 채를 샀다.
- ㄹ. 무궁화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sqsubset, \sqsubset$

※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통계 수치 본 적 있니? 현재 지구촌의 65억 인류 중 약 1/4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그 중 70%가 여성과 아이들이다. 또 약 20억 명의 전 세계 어린이 가운데 1억 2천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며, 비슷한 수의 어린이들이 거의 노예 노동을 하고 있어. 또한 매일 3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지.

그런데 이상한 점은 후진국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들이어서 평생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지지. 왜 그럴까?

그것은 대부분의 제3 세계 나라들이 선진국의 식민지였거나 독립 이후 자유 무역에서도 여전히 종속적 위치여서 진정한 자치와 자율을 실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또 그런 구조 속에 이뤄진 경제 발전조차 내실 없이 외형만 커졌던 탓이기도 하고.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은 1인당 GDP가 3~4만 달러이고, 한국은 2만 달러 수준이지만, 제3 세계 나라들은 아직도 100~200달러 수준이 많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양심적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공정 무역 운동이야. 한마디로 선진국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가 후진국 사람들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성,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후진국 사람들이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야 한다는 성찰이 공정 무역을 탄생시킨 것이지.

공정 무역은 1950년대 말 영국의 국제 구호 단체 ‘옥스팜’에서 중국 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옥스팜’과 ‘텐 사우전드 빌리지’ 같은 시민 단체들이 제3 세계의 정치적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운동에 뛰어들면서 그 흐름이 대중화되었어. 특히 1989년, 전 세계 270개 공정 무역 단체가 가입한 국제 공정 무역 협회의 출범 이후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운동이 활발하지. <중략>

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전 세계 공정 무역 제품 판매는 16억 유로(약 2조 1,500억 원)어치로, 2005년에 비해 42% 늘었대. 공정 무역 인증제품만 2,000여 개 품목이 유통되고, 700만 명 이상의 생산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

스위스에서는 판매되는 바나나 중 47%가 공정 무역으로 들여온 것이고, 영국에서는 공정 무역 원두커피의 점유율이 20%나 된다고 해. 독일에서는 노동계, 환경 단체, 기업이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 무역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통해 농산물이 유기 농법으로 생산되도록, 또 농산물이 제값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잘 감시하지.

이렇게 윤리적 소비 운동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공정 무역이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무역이 아직 생소한 개념이야.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공정 무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

2004년에 우리나라의 한 소비자 단체에서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마스코바도 설탕을 팔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점점 관심이 늘어나 몇몇 시민 단체에서도 커피, 의류 등의 공정 무역 제품을 내놓고 있지.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에서 나온 거야.

2007년에는 한 은행의 노동조합과 소비자 단체가 연대하여 ‘윤리적 소비’ 실천을 위한 물품 공급 협약식을 맺었어. 이 협약은 노동조합이 윤리적 소비 실천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운동을 펴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 그리고 제3 세계의 농민 공동체에서 생산해 공정 무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소비하겠다고 다짐한 첫 사례라 큰 의미가 있다고 봐. 최근 강조되는 ‘1사 1촌 운동’을 통한 농촌 살리기가 공정 무역을 매개로 국경을 넘어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지.

10. 윗글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할 때,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정 무역의 뜻은 무엇일까?
- ② 공정 무역의 문제나 한계는 없을까?
- ③ 공정 무역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 ④ 공정 무역은 언제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실태는 어떠한가?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공정 무역은 선진국의 대기업에서 시작되었다.
- ② 후진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아지고 있다.
- ③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무역이 5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 ④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도 공정 무역 운동의 하나이다.

12. 밑줄 친 고유어 ‘느낌’에 대한 유의어를 한자어로 바꾸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도 잘 알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 기분(氣分)
- ② 그 책에 대한 느낌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
→ 소감(所感)
- ③ 전학 가는 보람이를 배웅하는데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 감정(感情)
- ④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행동에서 미심쩍은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 감회(感懷)

13. 다음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바람은 넘실 천 이랑 만 이랑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피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럴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 김영랑, 「오월」

- ①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색채 대비를 통해 풍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직유를 통해 산봉우리를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14. 다음 시의 ㉠~㉣에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 ② ㉡ ③ ㉢ ④ ㉣

15. 다음 글의 내용이 나타내고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영미는 모두가 사물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싫어서 사물의 이름을 자신이 정한 다른 단어로 바꿔 부르기로 결심하였다. 영미는 ‘침대’를 ‘사진’이라 부르기로 결심하고는 “침대에 누울 거야.”가 아닌, “사진에 누울 거야.”라고 말하였으며, ‘의자’를 ‘시계’라 부르면서 “시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영미 주변의 친구들은 영미의 말을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었다.

- ① 언어의 창조성 ② 언어의 사회성
- ③ 언어의 역사성 ④ 언어의 자의성

16.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서,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홀 제 독야청청(獨也靑靑)히리라.
- 성삼문의 시조

(나)
가마귀 눈비 마즈 희는 듯 검노미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라.
님 향(向)흔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라.
- 박팽년의 시조

- ① (가)의 ‘백설’과 (나)의 ‘눈비’는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을 의미한다.
- ② (가)의 ‘독야청청’과 (나)의 ‘일편단심’은 삶의 태도 면에서 유사하다.
- ③ (가)의 ‘낙락장송’과 (나)의 ‘야광명월’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가)의 ‘이 몸’과 (나)의 ‘님’은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이다.

17. 다음 ㉠~㉣ 중 순우리말인 것은?

유럽을 여행할 때면 ㉠ 국경을 넘는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 거미줄처럼 유럽 주요 ㉢ 도시를 이어 주는 국제선 열차를 타고 있으면 수많은 여행자와 함께 하루에도 몇 번씩 국경을 넘나들게 된다. 대부분 국경이 있는 지도 모르고 ㉣ 순식간에 넘는다. 휴대 전화의 통신사가 바뀌면서 다른 국가로 들어왔다는 문자가 땡땡 울리고 서야 국경을 넘은 사실을 알아차릴 정도다.

- ① ㉠ ② ㉡ ③ ㉢ ④ ㉣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
쭉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 ① 화자는 순수하고도 탈속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절제된 감정으로 ‘산’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19. 다음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고,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회화·공예품 등의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이다. 사적은 기념물 중 유적·신앙·정치·국방·산업 등으로서 중요한 것이고, 명승은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중요 민속 문화재도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속한다.

- ① 분류 ② 서사 ③ 대조 ④ 인과

20.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cafe - 카페 ② vision - 비전
- ③ jazz - 재즈 ④ supermarket - 슈퍼마켓